

익산역 이용객 위한 주차 서비스 확대

주차 1048면 확보... 열차 탑승권 있으면 공영주차장 24시간 내 무료 주차공간 부족 시, 역 주변 3개 주차장 대리주차 서비스 비용 1000원 등

익산시가 익산역 이용객 편의를 위해 주차 서비스 확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익산시는 한 번에 1,00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 인프라와 대리주차 서비스, 스마트 주차장 등 익산역 주차 편의를 향상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익산시는 11일 한 번에 1000대 이상 수용 가능한 주차 인프라와 대리주차 서비스, 스마트 주차장 등 익산역 주차 편의를 향상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시는 익산역 주변 대리주차 전용 구역에 추가로 확보해 대리주차 수용 대수를 95대에서 125대로 확대했다. 앞으로도 기차 시간이 급박한 이용객들이 신속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리주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3개 주차장에서 운영되는 대리주차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입구에서 대리

주차 요원에 기본 사항을 알려주면 번호표를 발급하고 주차를 한다. 차를 받을 때는 다시 번호표를 반납하고 주차 비용을 함께 대리주차 요금 1,000원을 결제하면 된다.

익산역 주차타워의 경우 공휴일(휴일, 금·토·일요일)은 대리주차 운영 시간이 8~24시이며, 평일 주중에는 18시까지 대리주차를 이용할 수 있다. 역골주차장과 송학주차장은 매일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또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익산시 유료 공영주차장 11개소를 대상으로 통합관제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공식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지능형 CCTV를 설치해 정확한 주차 정보를 통합관제센터로 수집하는 기술이 핵심으로 △공영주차장 위치 검색 △실시간 잔여면 수 확인 △대리주차 예약 △이용요금 결제 등 모바일을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성도 건설국장은 "앞으로도 익산역에서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문제를 겪지 않도록 수준 높은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대리주차 서비스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는 11일 신원식 부시장과 함께 '청렴한 추석 명절 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산시 '청렴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신원식 부시장과 '청렴한 추석 명절 보내기 캠페인' 실시

군산시는 11일 신원식 부시장과 함께 '청렴한 추석 명절 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을 앞두고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부정 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 해이해지기 쉬운 청렴 의식을 재고하기 위한 것으로 △청렴 주의보 발령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공직자강 점검과 함께 이루어지는 캠페인이다.

신원식 부시장은 청렴한 추석 명절

보내기는 선물 안 주고 안 받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간부들이 주도하는 청렴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청렴 캠페인은 조직의 관리자들이 불합리한 관행과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야 청렴도를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기획되었다.

앞으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11명이 2주 간격으로 청렴 캠페인을 주관해 10월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하천 재해예방 위해 '온힘'

산복천 제방 등 총 31곳, 하천 대규모 복구사업 종료

익산시가 지난해와 올해 여름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하천을 튼튼하게 복구하고,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해 12월 착공한 용안면 산복천 하류 구간 보강공사 등 31개소 하천에 대한 대규모 복구사업을 모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그중에서도 산복천 제방은 지난해 7월 파이핑 현상이 발생해 유실·붕괴 위험이 컸다. 파이핑 현상은 구조물과 흙 이음새에 틈이 생겨 그 사이로 물이 새어 나가며 구멍이 점차 커지는 것으로 한 번에 많은 비가 내릴 때 더 위험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폭우가 쏟아지던 당시 산복천 인근 10개 마을에 사는 주민 337명에 대한 대피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방 성토까지 작업을 마무리 지었으며, 이달 준공을 진행해 용안생태습지로 진출입하는 제방을 개통했다.

다만 올해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면서 익산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올해 피해를 입은 하천은 추가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도 우기철 전까지 기능복구공사를 완료해 추가 피해에 대비할 계획이다.

올해 제방이 유실된 산복천 상류 구간 2.5km에 대한 개선복구사업비 326억 원이 확정됐다. 익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국비는 312억 원으로 책정돼 지방비 부담을 덜었다.

익산시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곧바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으며, 오는 10월 설계에 착수해 내년 우기철 전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개선복구사업 특성상 빠른 기간 안에 준비를 완료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는 만큼 2026년까지 하천 정비 2.5km, 교량 4개소 재가설을 조속히 완료해 재해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성도 건설국장은 "지속적인 자연 재해 발생에 대응하고자 장·단기간에 걸친 빠르고 안전한 복구사업에 매진하고 있다"며 "중앙부처, 전북자치도와 예산 확보 등을 긴밀히 협의해 차질 없는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장,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나서

익산시가 물가 급등과 경제침체로 위축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정현을 익산시장과 직원들은 11일 북부시장을 비롯한 7개 전통시장을 방문해 명절 장보기에 나섰다.

북부·익산장, 남부·구시장, 중앙·매일·서동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과 다이로움 지역화폐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장보기가 끝난 후에는 직원들과 함께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건넸다.

익산시는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특별기간'으로 정했다.

아울러 오는 16일부터 10월 3일까지 지역 전통시장 안에 있는 다이로움 가맹점에서 3만 원 이상을 다이로움으로 결제할 경우 500명에게 다이로움 포인트 1만 원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추석 명절 대비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군산시는 1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공시장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한국어성소비자연합 군산지부, 소비자교육중앙회 군산지회 등 소비자단체 회원 30여 명이 모여 추석 명절 전통시장 이용하기 및 성수품 부담한 가격 인상 자제와 친절 서비스 제공에 대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시는 앞서 주요 성수품(20개 품목) 수요 증가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질 것을 예상해 9월 5일(목)부터 9월 18일(수)까지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4개 반을 편성하였다.

운영기간 동안 시는 물가모니터 요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물가지도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사과, 배, 소고기, 명태 등의 주요 성수품에 대한 가격 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부시장, 내년 국가예산 국회 건의 활동

국회의원 면담·현안사업 예산 반영 협조 요청 등



군산시 신원식 부시장이 지난 10일 국회를 방문해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분야별 총력전에 나섰다.

신 부시장은 가장 먼저 신영대 국회의원을 만나 군산시 2025년도 국가예산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안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사업별 상임위에 따라 이원택·윤준병·이인주·김윤덕·이춘석 국회의원을 연이어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신 부시장은 내년 군산시 국가예산사업의 당위성과 현안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한 뒤 국회 단계에서 사업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록 협조를 구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은 △개야도 국가 어항 개발 △새만금 신항만 관공선 건조 △친환경 유무인 해양 이동 수단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중대형 전기상용차용 대용량 에너지저장 시스템 및 초 급속 충전 평가 기반 구축 △미래상용차 자율주행 운송 전주기 검증을 위한 실 환경 모사 기반 구축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건립, △서해안드라이브 명소화 사업 △군산항 유지 준설 추가예산 확보 등 9개 사업으로 총 147억 원 규모이다.

신원식 부시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더욱 치열해진 국가 예산 확보전에서 내년도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양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